

# 목포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선도한다

과기정통부 프로젝트 공모 선정

사업비 37억원 확보

목포·신안·여수 메타버스 구축

목포시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전파진흥협회) 주관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과제 공모에서 '디지털 섬·바다 정원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는 일상생활·공공·지역 분야에서 국민 편의 증진과 산업 혁신을 가져올 선도적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목포시와 신안군, 여수시의 섬·해양관광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위해 2024년까지 2년간 국비 16억을 포함해 총 37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을 맡아 추진·관리하며 목포시와 신안군, 여수시를 사업지역으로 한다.



목포·신안·여수 주요 관광지를 담은 3차원 가상 공간(메타버스) 구상도.

<목포시 제공>

시스템 구축은 (주)공간정보와 (주)스마트 큐브가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목포, 신안, 여수 3개 지역 9개 주요 관광지 약 200만㎡에는 메타버스 내 3차원

공간이 구성되고, 이와 연계한 19종의 지역 특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메타버스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 지역 관광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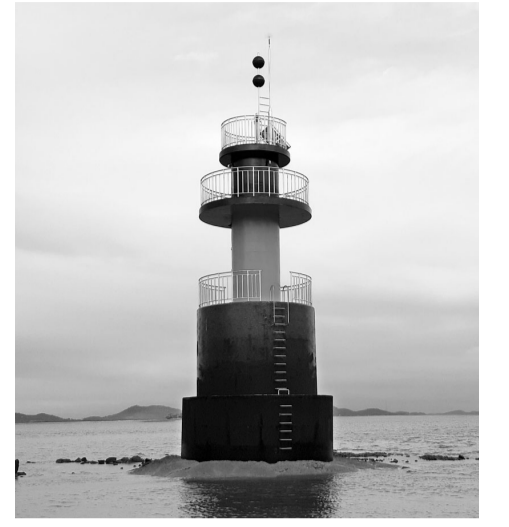
앞서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306억원)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64억원) ▲갯GPT(생성형 AI 기술)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19억원) 등에 선정됐다.

목포시는 이번엔 선정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은 전남 서남권 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4차산업 관련 사업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신안 병풍도 새 등대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보기선착장 인근에 등대(사진)를 최근 새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풍도북방등표는 국비 6억원을 투입해 지름 6m, 높이 13.6m 규모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졌다.

밤 시간대 10초에 2번 주기로 불을 밝혀 주위 암초와 천소(淺所) 등 장애물을 표시한다. 그동안 해당 해역은 선박이 섬을 오가면서 암초 충돌 위험이 제기돼왔다.

밀물 때나 시계가 좋지 않을 때 김 양식 관리선 사고 우려가 있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등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선박의 항해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와 12사도 순례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객선 안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 동백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등록

전국 최초...사용 조례도 제정

완도군은 완도 동백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등록으로 완도 동백 잎의 원산지가 완도군임을 증명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18년 5월 완도 동백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했으며, 5년 만에 등록하게 됐다.

특허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등록이 시작된 이후 올해 6월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임산물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권은 3건이며, 완도군이 2건을 보유하고 있다. 완도는 동백과 함께 황칠도 등록했다.

전국 최대 동백 천연림이 있는 완도군은 완도 동백 추출 고요산혈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엔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을 등록하면



서 완도 동백의 우수성을 다시 증명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한 '완도 동백 특산물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동백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특허 출원으로 소비자가 완도 동백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특허를 활용한 산업화를 통해 지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국 최초로 특허청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된 완도 동백.

<완도군 제공>



항 내 양식시설 철거가 완료돼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흑산도항(여리항) 전경.

## 신안군,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 정비 완료

28억원 들여 매입·위탁 철거

신안군이 흑산도항 내의 양식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군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흑산도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흑산도항 개능개선과 청정어항 조성을 위해 항 내 양식시설 매입과 위탁 철거(29여 가, 12.8ha, 가두리 951칸, 연승식 245줄), 수중 잔존물 인양 등이 추진됐다.

흑산도항 내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전복, 다시마 등이 양식돼 왔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 '흑산도항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총 12.8ha의 면적은 2025년까지 어업권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양식업을 전직으로 여겨온 어업인들로서는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들은 정부와 신안군을 상대로 수년간 한시적 연장 철거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신안군은 국가로부터 수용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흑산도항 개발사업'의 이해 당사자(양식어업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항 내 양식시설 매입이라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수년간 어업인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군비 100%를 지원해 전량 매입·철거를 완료했다.

이번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이 철거되면서 오랜 기간 가려진 흑산도의 관문과 경관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흑산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공간과 여건이 제공됨으로써 지역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도항 개항 예정에 따른 지역현안 등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을 개발해 새롭고 다양한 소득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5월 전복 치패 20만미 이어  
진도군 꽃게 10만 마리 방류

진도군이 어업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 방류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 수산단체인 진도군각각류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자체 생산한 어린꽃게 10만 마리를 진도해상에 무상 방류했다.

방류한 꽃게는 인공부화한 전갑폭 1cm 이상 되는 어린 꽃게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쳤다.

군은 지난 5월에도 전복 치패 20만미 방류를 시작으로, 6월에는 어미까지 3000여마리와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전복은 인공부화로 생산한 각장 3cm 이상 되는 치패를 잠수사를 통해 생태환경이 좋은 지역에 방류했고, 낚지는 육상에서 수생기간 어미까지로 평균 120개의 산란이 가능하다.

또 지난 6월에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꽃게 자원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선어업 주요 소득품종인 어린 꽃게 75만 마리를 진도 조도해역에 방류했다.

군은 오는 7월 중순에도 어린 꽃게 22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확보 건의

15개 사업 2436억원 지원 건의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급재정 기조 강화 발표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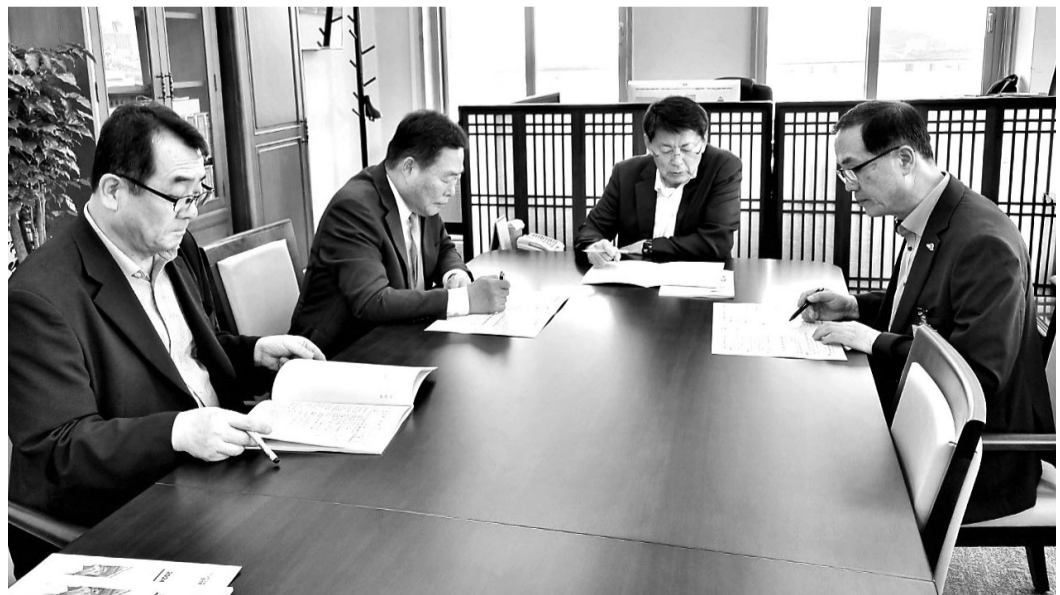
김 군수는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간사인 강훈식 의원, 예결위 소속 박상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오톨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160억원), 도리포 해남이 해맞이 갤러리사업(144억원),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사업(81억4000만원), 청수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0억원), 유기성 폐차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333억원) 등 5개 사업이다.

오톨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남양·오톨지구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크게 늘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도리포 해남이 해맞이 갤러리사업은 신안, 영광을 잇는 광역 관광 루트 활성화를 위한 해안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중점사업으로는 성동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960억 원), 무안항도갯벌랜드 목재 오션타워 조성사업(130억 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산(왼쪽 두번째) 무안군수는 지난 10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왼쪽 세번째)위원장과 간사인 강훈식 의원, 예결위 소속 박상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무안군 제공>

'성동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무안읍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무안항도갯벌랜드 목재 오션타워 조성사업'은 갯벌랜드에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 목재 오션 타워 및 하늘산책로(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백수읍·염산면 등  
5곳 옥외 민원발급기 설치



영광군 염산면 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영광군이 백수읍과 염산면 등 5개 읍·면 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 설치해 24시간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영광군은 청사 내부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건물 밖으로 옮겨 심야, 주말·공휴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민원발급기에 대한 접근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출입문과 휠체어 진입 경사로, 무인경비체제, 냉난방기 등을 갖췄다.

영광군은 군청과 읍·면 사무소, 농협 자동입출금기, 병원 등에서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납세증명서 등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목포시와 목포경찰서가 12일 19개 주요 거점 교차로에서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대규모 방문객 맞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시와 경찰서는 물론 23개동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민 선진 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읍주운전 근절, 이륜차 안전 운행,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2023년 회광찬 목포 만들기 범시민 운동 4대 과제 중 하나인 약속 지키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통질서 지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전국체전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